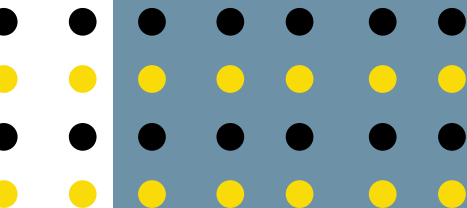




아덱스저항행동 × 피스모모

배움의 공간에서 무기 박람회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

진행자를 위한 평화배움 교안 시리즈 9



아덱스 = 죽음의 시장

전쟁장사를 멈춰라

PEACE
MO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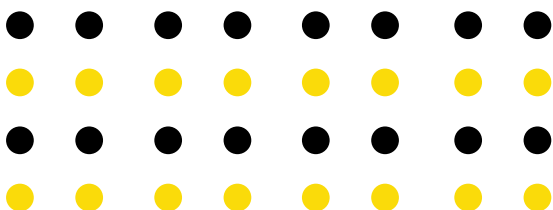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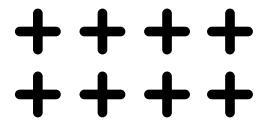
목 차

시작하는 말 · 4

활동1. 무기에 둘러싸인 사람들 · 7

활동2. 역할극: 무기를 둘러싼 사람들 · 15

활동3. 무기를 전시한다는 것 · 21





시작하는 말

시작하는 말

1992년 5월 27일 오후 4시, 사라예보의 한 빵집 앞에 박격포탄이 떨어졌습니다. 긴 전쟁으로 인해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빵을 구워 팔기 시작한 가게 앞에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한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100여 명이 부상을 입었고 2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4시, 텍시도를 차려입은 한 남자가 그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 남자는 포탄으로 산산히 부서진 잔해 위에서 첼로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전쟁 이전까지 사라예보 필하모닉에서 첼로를 연주했던, 첼리스트 베드란 스마일로비치(Vedran Smailovic)였습니다.

베드란 스마일로비치는 그 날로부터 22일간 매일 같이 오후 4시가 되면 텍시도를 차려입고 포탄이 떨어진 자리에 앉아 알비노니의 ‘아다지오 G 단조’를 연주했습니다. 전쟁의 한가운데 첼로를 연주하는 그의 목숨을 담보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연히 베드란 스마일로비치에 대한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보게된 캐나다의 작가 스티븐 갤러웨이는 베드란의 실화를 모티브로 하는 소설 “사라예보의 첼리스트”라는 소설을 쓰게 됩니다. 스티븐 갤러웨이는 말합니다. “무기는 죽일지 말지 결정하지 않는다. 무기는 이미 내려진 결정의 표현이다.”

1996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서울에서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Seoul International Aerospace & Defence Exhibition)”가 열립니다. 이 전시회는 영어 이름을 줄여 아덱스(ADEX)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덱스는 방위산업 육성과 국내 군수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해외투자를 유치, 또 국내산 무기의 해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전시회입니다. 무기 거래와 관련한 계약들이 성사되는 것이 이 전시회의 가장 큰 목표인데요. 이 전시는 대중에게도 오픈됩니다. 이미지로만 접하던 거대한 무기들을 볼 수 있는 이 전시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참여합니다. 학교도 예외는 아니지요. 아덱스는 ‘학생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수많은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학생들을 초대하고는 합니다. 교복을 입고 줄서서 참여하는 학생들의 행렬을 심심치 않게 마주칠 수 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관람하고자 하는 거대한 무기. 이 무기들은 과연 관람할 만한 대상이 맞을까요? 영화에서만 보던 무기를 눈앞에서 볼 수 있고, 거대한 전투기의 에어쇼를 볼 수 있는 현장은 무엇을 위

한 '교육'의 경험이 될까요? 누군가를 죽이는 장면을 보는 것은 안 되지만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를 보는 것은 괜찮을까요? 세네카(Seneca)가 했다는 말처럼 무기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의 문제(A sword never kills anybody; it is a tool in the killer's hand.)로 봐야하는 걸까요? 아직 사용되지 않은 무기는 가치중립적일까요? 그렇다면 무기를 생산할 뿐, 사용하지는 않는 사람의 사회적 책임은 없는 걸까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2020 전 세계 무기거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전 세계 무기 수출 1위는 미국, 수입 1위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무기 수출량은 전세계 무기수출량의 37%를 차지하지요. 한국은 2020년 전세계 무기 수출과 수입에서 각각 9위와 7위를 기록했습니다. 200여 개의 국가 중 무기 수출과 수입면에서 모두 10위권을 기록한 대한민국의 성적,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분단상황의 대한민국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들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교안은 피스모모가 “아덱스저항행동”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무기를 전시한다는 것의 의미를 들여다보고, 무기를 하나의 상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무기와 어떤 형태로든 관계 맺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목소리를 통해 ‘무기전시’라는 행위를 낯설게 보고자 합니다. 다양한 배움의 공간에서 평화에 대해 함께 깊이 토론하는 경험이 만들어지는데 의미있는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10월 23일
아덱스저항행동 × 피스모모



활동1. 무기에 둘러싸인 사람들

● 활동1. 무기에 둘러싸인 사람들

활동목표

- 무기가 사용되는 현장, 그 곳에 실재하는 다양한 개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 무기 거래에 대한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감각을 넘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감각을 촉진한다.
- 전쟁과 무기 거래, 국가, 기업, 개인들 사이의 보이지 않는 실 (연결, 연관성)을 찾아본다.
- 방위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살펴보고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본다.

진행방식

- 1) 활동공간에 소그룹이 모여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테이블 등을 배치합니다.
- 2) 테이블마다 각 이야기와 관련된 키워드, 그림들을 펼쳐놓습니다.
- 3) 참여자들은 테이블 위의 이야기 중 읽고 싶은 이야기를 선택해 읽습니다.
- 4) 참여자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테이블에 함께 앉은 모든 이들에게 들려줍니다.
- 5)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함께 생각해볼 질문들에 따라 서로 생각을 나눕니다.

함께 나눌 질문

- 이야기를 읽으며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 이야기의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았나요?
 - 이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야기에 어떤 행위자들이 등장하나요?
 - 이야기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행위자가 있을까요?
 -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

이야기 1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약한다면, 우리는 전쟁의 언어의 의미를 배웠어요. 글자 그대로의, 객관적인 의미를. 우리는 집단 무덤(a mass grave)이 무

엇인지 배웠어요. 강제 실종과 고문에 대해 배웠어요. 우리는 지뢰로 인해 몸이 절단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이주와 위협의 고통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우리는 전쟁에 사용된 무기들의 이름과, 비행기와 헬리콥터의 이름들을 배웠어요. 무장단체의 시선을 배웠어요. 아이의 눈에 비친 두려움을 배웠어요. 노인들의 먼 슬픔의 시선을 배웠고, 어머니의 무너지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배웠어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 테레시타 하라미요, 피해자/교사, 콜롬비아 내전

If I could summarize what has happened, we have learned the meaning of the language of war. To the letter, and in a very objective way. We learned what a mass grave is. We learned about forced disappearance and torture. We learned what a mutilation by a mine was. We learned what the pain of displacement or threats was. We learned the names of the weapons used in the war, the names of the planes and the helicopters. We learned the gaze of the armed group. We learned the fear in a child's eyes. We learned the distant grieving gaze of old men. We learned what a mother's broken heart looks like. We learned all that.

-Teresita Jaramillo, victim/teacher, civil war in Colombia

[출처] Forces of the Heart: Peace Education in Colombia

<https://www.youtube.com/watch?v=dHoPy6wht1g>

.....

이야기 2

4년째 내전 중인 예멘에서 6월 18일 후티 반군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들여다본다. 아랍어로 추정되는 생경한 언어가 흘러나온다. 군복을 차려입은 반군이 무기를 바닥에 잔뜩 펼쳐놓은 채 일일이 설명하며 자랑하는 듯하다. 굳이 설명을 듣지 않아도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군용 망원경과 무전기, 총탄들... 그 틈에 30여 개 수류탄도 가지런히 나열돼 있다. 카메라가 ‘줌 인(zoom-in)’으로 수류탄 하나를 비춘다. ‘세열수류탄 K413 COM(P) 로트 한화보 14야625’. 어라? 예멘 전쟁터에 웬 한글이? 눈을 씻고 다시 봐도 한글이 분명하다. 나란히 놓인 같은 모양 수류탄에도 한글 ‘세(열)’와 ‘한(화)’이 선명하다. 탄체는 작고 가볍지만 살상반경이 10~15m에 이르는 한국산 ‘살상무기’다.

[출처] 한겨레21: 예멘전쟁터의 메이드인코리아

https://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6134.html

.....

이야기 3

그 사람이 나를 향해 조준하는 걸 봤지만 그 사람이 헬멧을 쓰고 있어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내가 맞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강렬하게 타는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뜨거운 물체였습니다. 손으로 잡았다면 손이 녹았을 거예요. 피를 굉장히 많이 흘렸기 때문에, 엄청난 타격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 아드난 도룩, 최루탄에 맞아 부상, 터키

I saw him aim at me but he was wearing a helmet so you couldn't see his face. I knew I would be hit. I felt an intense burning because it's a very hot thing. if you held it your hand would melt from the heat. I realized it was a very strong blow because I lost a lot of blood.

- Adnan Doruk, injured by a teargas canister

버킨은 일요일 아침에 빵을 사러 갔습니다. 빵집은 집에서 2분 거리에 있어요. 하지만 버킨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는 결국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게임을 하는 열네 살짜리 아이입니다. 지금 그는 생명을 걸고 싸우는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 사미 엘반, 최루탄 연기로 인해 입원한 14세 피해자 버킨의 아버지

Berkin went to get bread for breakfast Sunday morning. The bakery is two minutes from the house. He didn't return from that two-minute trip. He ended up in the hospital. He's a fourteen-year-old kid who still plays games. Now he's in the hospital in critical condition, fighting for his life. We hope to god our son will come back to us.

- Sami Elvan, father of Berkin, 14-year-old victim

[출처] Turkey: Unlawful Use of Teargas

https://www.youtube.com/watch?v=0Gdj_kamwN0&t=82s

이야기 4

그때는 내 감정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나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불을 봤습니다. 그리고 몸에 화상을 입기 시작했어요. 물질이 호흡기와 위장에 들어갔고 숨쉬기가 매우 힘들어요. 우리가 처음 병원에 갔을 때 의사들은 이런 종류의 물질을 다룬 경험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물과 약간의 혈청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르고 나니 처음에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1분도 되지 않아 고통이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우리는 몇 시간만 그곳에 있다가 다시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치료를 마친 후 6개월 동안 나는 밤에 꿈을 꾸거나 깬 채로 누워서, 그날의 모든 일을 다시 경험했어요. 결국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에게 치료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내 몸의 상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내 몸의 85% 정도입니다. 거리를 걸어다니면 누군가가 "왜 그렇게 생겼어요?" 라고 말할 겁니다. 제일 힘든 건, 제 조카가 제 근처에 오는 걸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항상 나를 안아 주던 다른 조카는 나와 함께 노는 걸 무서워합니다.

- 무하메드 아시, 학생, 소이탄* 피해자

*소이탄(燒夷彈, incendiary bomb)이란 폭탄·총포탄·로켓탄·수류탄 등의 탄환류 속에 소이제(燒夷劑)를 넣은 것이다. 사용되는 소이제에 따라 황린(黃磷) 소이탄, 터마이트(thermite) 소이탄, 유지(油脂) 소이탄으로 분류된다. (출처: 소이탄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86%8C%EC%9D%B4%ED%83%84>)

At the time, words couldn't describe my feelings. I saw fire completely surrounding me. And I started feeling burns on my body. The substance entered my respiratory system and my stomach, and it was very hard to breathe. When we first got to the hospital, the doctors didn't have a lot of experience dealing with this kind of substance. They started dousing us with water and with some serums. This was calming us at first, but then after less than a minute, my pain would multiply. We stayed just a few hours and then they transferred us in ambulances.

For six months, after I finished treatment, I would dream or lay awake at night, reliving all the events of that day, to the point where I sought treatment from a psychiatrist in France. The injuries to my body, the visible damage, it's about 85% of my body. I'll be walking on the street and someone will stop me and say, "why do you look like that?" The hard part is my little nephew is scared to come near me. My

other nephew, who always used to hug me, is scared to play with me.

- Muhammed Assi, student, severely injured by incendiary weapons

[출처]Incendiary Weapons: Human Cost Demands Stronger Law

<https://www.youtube.com/watch?v=90DmiMX9Lvg>

.....

이야기 5

“믿기지가 않았어요. 나는 각종 국제 안보 문제를 다루고 있었는데, 사실 잘 몰랐어요. 그 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내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물건이 카불(*아프가니스탄의 수도)에 잘 도착하지 않으면 아프가니스탄 군대를 구축하려는 전체 전략이 실패하는 거였어요. 완전히 짹짹했어요. 엄청난 그림자 세력들이 있었고, 나는 그들의 동기가 뭔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나는 정신을 차리고 최고의 무기 딜러 얼굴을 해야 했습니다.”

- 파쿠즈, 미국 무기 거래상

“It was surreal. Here I was dealing with matters of international security, and I was half-baked. I didn’t know anything about the situation in that part of the world. But I was a central player in the Afghan war — and if our delivery didn’t make it to Kabul, the entire strategy of building up the Afghanistan army was going to fail. It was totally killing my buzz. There were all these shadowy forces, and I didn’t know what their motives were. But I had to get my shit together and put my best arms-dealer face on.”

- Packouz, arms dealer, US

[출처]The Stoner Arms Dealers: How Two American Kids Became

Big-Time Weapons Traders <https://www.rollingstone.com/feature/the-stoner-arms-dealers-how-two-american-kids-became-big-time-weapons-traders-176604/>

.....

이야기 6

총과 함께 산다. 이것이 우리의 직업이니까... 다른 직업은 구할 수가 없다. 내전 전 '바레' 정권 시절에 학교를 졸업했다. 하지만 내전이 일어나

고 총잡이 외에는 밥벌이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총을 잡았다.

- 모가디슈의 한 청년

[출처] 모가디슈 탈출 10년 후 소말리아 현지 르포(2002) | 끝나지 않는 내전과 주민들의 위태로운 생존 투쟁 | “긴급리포트 소말리아” (KBS 020206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SsOgkYBqKmA>

이야기 7

항공우주, 방위산업의 주역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내기 위한 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강하고 독자적인 항공우주 산업과 방위 산업의 역량확보가 절실합니다.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의 첨단 무기 체계를 조속히 전략화해야 합니다. ... 이제 우리 방위 산업도 첨단무기 국산화의 차원을 넘어 수출 산업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위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더 많은 일자리로 이어질 것이고 방위 산업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

[출처] 문재인 대통령, 서울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참석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Yty7uED5zWk>

.....

이야기 8

우리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든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로 인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재앙에 가까운 잘못된 권력이 일어날 잠재력이 존재하며 이는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자유 또는 민주적인 과정을 위태롭게 하는데 힘을 실어주는 안됩니다. 오직 경계하고 지성있는 시민만이 평화적인 방법과 목표를 통해 산업적이고 군사적인 거대 방어체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안보와 자유가 번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 사회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우리는 - 여러분과 나, 그리고 미국 정부 - 오늘날 살겠다는 충동과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 미래의 귀한 자원을 약탈하는 것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미국, 34대 대통령

In the councils of government, we must guard against the acquisition

of unwarranted influence, whether sought or unsought, by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The potential for the disastrous rise of misplaced power exists and will persist. We must never let the weight of this combination endanger our liberties or democratic processes. We should take nothing for granted. Only an alert and knowledgeable citizenry can compel the proper meshing of the huge industrial and military machinery of defense with our peaceful methods and goals, so that security and liberty may prosper together.

As we peer into society's future, we -- you and I, and our government -- must avoid the impulse to live only for today, plundering, for our own ease and convenience, the precious resources of tomorrow. We cannot mortgage the material assets of our grandchildren without risking the loss also of their political and spiritual heritage. We want democracy to survive for all generations to come, not to become the insolvent phantom of tomorrow.

- Dwight David Eisenhower, the 34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출처]Military-Industrial Complex Speech, Dwight D. Eisenhower, 1961
https://avalon.law.yale.edu/20th_century/eisenhower001.asp



활동2. 역할극: 무기를 둘러싼 사람들

모두가 유죄인 곳에서는, 아무도 유죄가 아니다.

말하자면 집단적인 유죄의 고백은

범죄자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실행 가능한 가장 탁월한 방어수단이며,
그 범죄의 거대한 규모는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데 대한 가장 탁월한 변명이다.

— 한나 아렌트, 『폭력의 세기』

● 활동2. 역할극: 무기를 둘러싼 사람들

활동목표

- 무기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상황을 조사하고 그 입장이 되어본다.
- 전쟁과 무기 거래, 국가, 기업, 개인들의 관계망을 간접적으로 경험한다.
- 무기산업의 실태와 행위자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토론하며 스스로의 입장을 정리해본다.

진행방식

- 1) 역할카드를 인쇄해 참여자들이 제비뽑기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2) 참여자들은 역할카드를 무작위로 뽑습니다.
- 3) 진행자는 역할극 배경에 대해 안내합니다.
- 4) 참여자들은 역할극 배경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설정합니다.
- 5) 역할극이 진행될 시간(20분)을 안내합니다.
- 6) 역할극이 시작되면 그 역할을 연기하며 시간안에 각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 7) 한정된 시간(20분)이 종료된 이후, 결과를 확인합니다.
- 8) 다양한 역할들이 뒤섞이는 소그룹을 만들고 활동에 대한 소감과 고민되는 지점을 나눕니다.
- 9) 그룹별 논의를 전체에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역할극 배경안내

서울에서 무기박람회(무기전시회)가 열린다. 이 무기박람회에 참여하는 군수산업체(A)의 구성원들은 군부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국가(B)의 군사정부와 반드시 무기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A)사와 (B)국가 군사정부간의 계약이 체결되면 민주화운동세력(C)의 구성원들은 사망한다. (A)사와 (B)국가 군사정부간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A)의 영업팀장과 영업사원들은 일자리를 잃는다.

국가(B)의 군사정부는 민주화운동세력(C)에 대한 진압을 준비하고 있다. 이 무기박람회에서 해당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할시에 (A)사의 영업팀장

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국가(B)의 군사정부는 무기계약이 체결되는대로 민주화운동세력(C)에 대한 진압을 진행하기로 하고 가장 적합한 조건의 업체를 물색하고 있다. 또한 국경수비대를 통해 민주화운동세력(C)과 평화단체(D)의 연대를 막으려 한다.

민주화운동세력(C)은 이 무기계약이 체결될 경우 목숨을 잃게 된다. 국경수비대를 뚫고 활동가를 파견해서 평화단체(D)의 계약체결 저지를 지원하고자 한다.

평화단체(D)는 무기박람회장에 잠입해서 군수산업체(A)와 국가(B)의 군사정부간 무기계약체결을 저지하려 한다. 무기계약이 체결될 경우 국가(B)의 민주화운동세력(C)과 그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시민들(E)은 이 무기박람회에서 어떤 계약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다.

언론(F)은 이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으나 국가 안보 기밀로 취급되는 정보들이라 삼엄한 경비구역(G)들을 뚫고 취재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취재를 하더라도 경비구역(G)을 뚫고 나가 그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경비구역(G)들은 무기박람회때마다 귀찮게 하는 평화단체(D) 활동가들을 반드시 막아내려 한다. 평화단체 활동가들은 일반시민인척 하거나 군수산업체 관계자인척 하기 때문에 만나는 모두를 의심하고 신분증을 요구한다.

시민들(E)은 정보를 받고 평화단체(D)와 연대해 무기계약 체결을 저지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역할카드 구성

[군수산업체 A - 3인]

군수산업체 A 대표

국가 B의 국방부장관과 만나 악수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군수산업체 A 영업팀장

회사 A 대표와 국가 B의 국방부장관의 계약을 체결시키기 위한 계획을 지시, 실행한다.

군수산업체 A 영업사원

회사 A 영업팀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

[국가 B - 5인]

국가 B: 국방부장관

군수산업체 대표 A와 만나 악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국가 B: 국방부차관

군수산업체 영업팀장과 소통하여 국방부장관과 대표의 계약일정을 추진한다.

국가 B: 국경수비대 대원 1, 2, 3

국가 B 현지에서 민주화운동세력의 이동을 막는다.

[민주화운동세력 C - 2인]

민주화운동세력 C: 활동가 1, 2

동료 활동가들과 소통하여 국경수비대를 뚫고 군부세력B와 군수산업체A의 계약을 막아내야한다.

[평화단체 D - 2인]

평화단체 D: 활동가 1, 2

동료 활동가들과 군부세력B와 군수산업체A의 계약을 막아낼 계획을 세우고 막아내야한다.

[시민 E - 10인]

시민 E: 직장인

사회참여에 관심이 많은 편이나 야근이 많아 늘 피곤하다.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휴가를 내야 하는데 쓸 수 있는 휴가가 많지 않다.

시민 E: 고등학교 3학년생

사회참여에 관심은 많은 편이나 수능을 앞두고 있어 실질적인 참여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시민 E: 고등학교 3학년생의 어머니

사회참여에 관심은 많은 자녀를 자랑스러워하나 사회활동은 대학 합격 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 E: 은퇴한 노인 연금생활자

국가안보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한다. 베트남 참전 경험이 있다.

시민 E: 은퇴한 노인 활동가

은퇴 후 시니어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의욕은 높지만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시민 E: 탈학교 청소년

학교를 다니지 않아 시간이 비교적 자유롭다. 사회참여에 적극적이다.

시민 E: 육아휴직 중인 시민단체 활동가

시민단체 활동가이지만 출산한지 얼마 되지 않아 육아에 전념하고 있다. 어린 아기가 있는데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늘 어렵다.

시민 E: 육아휴직 중인 시민단체 활동가의 아기

생후 24개월, 의사표현을 곧잘하고 뛰어다닌다.

시민 E: 휴가중인 군인

대학교 학생회장으로 활동하다 현역군인으로 복무중이다.

시민 E: 직장인 - 병역거부자

병역거부로 수감된 적이 있다. 현재 직장에는 그 사실을 공유하지 않았다.

[언론 F - 2인]

언론 F: 취재기자 1

군수산업체 A와 국가 B의 국방부장관의 계약체결 장면을 반드시 사진으로 기록해야 한다.

언론 F: 취재기자 2

군수산업체 A와 국가 B의 국방부장관의 계약이 체결될 경우 민주화운동세력 C가 사망한다는 정보를 시민들 E에게 전달해야 한다.

[경비용역 G - 6인]

경비용역 G: 경비대장

평화단체 D의 현장 진입을 막고, 평화단체 D와 연대하려는 민주화운동세력 C와 시민 E들을 막는 동시에 언론 F의 취재기자 2가 시민들과 만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계획을 총괄 실행한다.

경비용역 G: 경비요원 1, 2, 3, 4, 5

경비대장의 지시에 따른다.

진행 팁

- 역할카드는 총 3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인원의 많고적음에 따라 역할카드의 개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역할카드의 숫자는 현실의 인원 규모를 반영했으므로, 참고하셔서 적절한 비율로 카드의 숫자

를 조정해주세요.

- 역할카드에 제시된 상황을 보고 각자 자기의 역할을 설정하고 행동할 수 있음을 안내해주세요.
- 진행시간 20분을 확실하게 지켜주세요.
- 계약체결여부는 취재기자 F-1의 사진기록으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핸드폰 또는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역할에 충실한 모든 활동이 가능하지만 역할극 속에서 물리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안내를 강조해주세요.



활동3. 무기를 전시한다는 것

무기는 죽일지 말지 결정하지 않는다.

무기는 이미 내려진 결정의 표현이다.

- 스티븐 갤러웨이

활동3. 무기를 전시한다는 것

박람회는 국가 또는 지역의 문화나 산업의 실태를 소개하기 위하여 관련 된 각종 사물이나 상품을 진열해 놓은 곳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근대적 의미의 박람회는 1851년 런던 대박람회를 시작으로 유럽 곳곳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교통 및 통신의 발달, 대량생산체제의 확립, 개인 기업의 발달과 함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의 자유무역을 강화되면서 상업적 성격의 국제 박람회가 크게 발전하였고, 오늘날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정착하였습니다.

박람회는 정보 교환과 수집이 상호적으로 일어나며, 상담에서 주문까지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점, 전시 품목에 관심이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고객의 니즈 파악이 용이하고 유대 관계 강화에 효과적이라는 점, 박람회 참가업체, 거래선 등의 목록을 통하여 박람회 종료 후에도 전시효과가 지속된다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방위산업 전시회의 시작은 1851년 런던 대박람회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인 발명가 사무엘 콜트의 리볼버 권총이 최초로 시연돼 화제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방위산업 전시회는 미 육군협회 방산전시회(AUSA Annual Meeting and Exposition, 이하 AUSA), 유럽의 유로사토리(Eurosatory), 영국의 국제 방위보안전시회(DSEI, Defense and Security Equipment International, 이하 DSEI) 그리고 중동의 국제방산전시회(IDEX, International Defense Exhibition and Conference, 이하 IDEX)가 있습니다.

AUSA는 매년 워싱턴DC에서 개최되며, 미국 국방부 조달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전시회로, 매년 전 세계 600여개 이상의 주요 방산업체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Eurosatory는 1967년 프랑스 군 조달청의 주도로 30개 전시업체가 모여 시작했고, 2년 마다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며, 60개국에서 1,700여개 방산업체가 참여합니다. IDEX는 중동지역서 가장 큰 규모의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로 전시회 현장에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무기거래 계약이 성사되어 각국 주요 방산업체의 각축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1981년 국군의 날이 포함된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한국무역종합전시장에서 열린 CODEX 81이 최초의 방위산업 전시회입니다. 1996년 서울 에어쇼로 시작하여, 2009년 통합 방산 전시회로 전환한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서울ADEX는 격년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014년 부터 격년으로 지상무기를 전시하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efense & Security Expo Korea) 등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활동목표

- 무기 박람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살펴본다.
- 무기 박람회에 대한 토론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한다.
- 그 입장을 바탕으로 각자의 입장을 정리해본다.

진행방식

- 1) 4~5명이 한 그룹이 될수있도록 소그룹을 구성합니다.
- 2) 진행자는 그룹별로 읽기자료1과 2를 제공합니다.
- 3) 참여자들은 받은 읽기자료를 살펴보고 질문지에 따라 토론합니다.
- 4) 그룹별 토론을 마친 후 그룹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전체에게 공유합니다.

읽기자료 1

현장참관기: 최신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기술을 한눈에~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6일 동안 서울공항(경기도 성남시)에서 ‘서울국제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이하 서울 ADEX 2019)가 개최됐다. 서울 AEDX 2019는 국내 최대의 항공우주방산 종합전시회로 1996년 ‘서울 에어쇼 96’으로 출발해 올해 12회째를 맞았다. 총 34개의 국가가 참여한 이번 전시회는 430개의 업체가 총 1730개의 부스를 운영,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15일부터 18일까지는 비즈니스 데이로 전문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전시회가 펼쳐졌고, 19일부터 20일 주말 동안에는 일반 국민도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회를 공개했다. 첨단 기술이 접목된 국내외 최신 항공기, 무기체계 등 실내외 전시를 비롯해 전투기 곡예 및 시범비행 같은 볼거리, 그

리고 다양한 체험 공간이 마련돼 가족 단위 관람객 등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실내와 야외에서 전시가 펼쳐졌는데, 실내 전시장에서는 최신 무기체계 장비, 무기, 시뮬레이터, 무인 정찰기 모형 등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첨단 기술이 융합된 제품을 볼 수 있었다. VR을 접목한 훈련, 더욱 정교화된 무기체계 장비들을 보니 국가 기술과 산업 역량이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국내 유명 기업들이 국방의 발전을 위해 여러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인상 깊었다. 국내 기술로 만든 국방로봇을 보니 든든한 마음이 들었다. 아울러 직접 전투기를 조종하는 VR 체험 서비스를 제공해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특히 어린이 관람객들이 직접 전투기 조종 체험을 해보기 위해 두눈을 반짝이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야외 전시장에서는 실물 또는 실물 모형의 전투기와 수송기들을 직접 타 보기도 하고, 사진도 찍어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돼 있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미래 영공을 책임질 KF-X 전투기 실물 모형을 일반 국민에게 최초 공개한 것이다.

전시장 한쪽에는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었다. 항공우주체험장에서는 신궁 시뮬레이션 체험, 3D 프린팅 체험, 공간지각훈련 체험, 전투기 VR 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어린이를 동반한 관람객들이 많이 몰려 직접 전투기 체험 및 무기 시뮬레이션을 해보기도 했다. 한 관람객은 “아이가 매우 즐거워한다. 데리고 오기를 잘했다”라고 말했다. …서울 ADEX 2019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에어쇼였다. 우리 공군 블랙이글스와 한·미 양국 전투기들의 곡예 및 시범 비행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멋있고 강렬했다. … 2년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인 ADEX는 2021년에 다시 개최될 예정이다. 매회 참가하는 국가와 업체가 증가하는 아덱스의 다음 전시회가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65784>

읽기자료 2

현장참관기: 살인무기 전시회

전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전시된 무기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여러 나라에서 온 군인들,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자사 무기 홍보에 여념이 없는 업체 관계자들, 모형 전투기에 올라타 조종사처럼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는 아이들.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마주치는 풍경은 어느 전시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팔려나가는 무기가 실제로 사용되는 곳의 풍경은 파괴와 고통의 현장입니다.

방위산업은 분쟁과 갈등을 기회로 이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만들어 파는 이들에게 평화와 안정은 사업상의 위기로 인식됩니다.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전쟁과 불안을 바라는 이들이 존재하는 이상 세계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전쟁을 통해 이윤을 얻는 전쟁장사꾼의 활동이 ‘방위산업’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어지게 내버려두어서는 안됩니다.

각국이 방위산업 진흥에 나서는 한 세계는 안전할 수 없습니다. 무기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중단해야 하며, 무기산업 육성과 수출 촉진을 위해서 개최되는 살인무기 전시회를 멈춰야 합니다. 또한, 무기수출 및 무기도입과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해 이러한 위험한 거래를 공공의 통제와 감시 하에 둘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처] 아덱스저항행동(www.stopadex.org)

[질문지] 함께 생각해 볼 질문들

- 무기산업이 아니라 방위산업으로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무기박람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어떤 목적으로 참가했을까요?
-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에서 무기 박람회가 개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무기를 물건을 판매하고 소비하는 하나의 산업으로 이해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 더 좋은 무기를 개발하고, 더 많은 무기를 판매한다면 세상은 더 안전하고 평화로워질까요?

- 퍼블릭데이, 학생의 날 등을 통해 무기 박람회에 시민들을 초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오늘 토론을 마치며 고민되는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진행자를 위한 팁

- 하나의 정답을 도출하기 보다는 다양한 입장이 두루 논의되고 존중되어야 함을 안내해주세요.
- 제공된 읽기자료 외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핸드폰 또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해주세요.
- 질문지에 대한 토론 이후, 개별로 질문지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안내해주세요.

참고자료

[기고] 전시회 없으면 산업도 없다.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40656> (동아사이언스)

박람회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2066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울 ADEX https://ko.wikipedia.org/wiki/%EC%84%9C%EC%9A%B8_ADEX (위키피디아)

한화디펜스, 영국 방산전시회 DSEI 2021 참가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930473> (NewsWire)

아덱스저항행동

아덱스저항행동은 무기 전시회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평화 활동가들, 평화운동 단체들의 네트워크로 2013년부터 아덱스 무기 전시회 반대 활동을 해왔으며, 2021년에는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www.stopadex.org
- 문의: 전쟁없는세상 (02-6401-0514, peace@withoutwar.org)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peace@pspd.org)

피스모모

피스모모는 평화와 배움, 평화와 일상을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서로배움을 통해평화커먼즈(peace commons)를 실천하는 시민공동체를 확장해갑니다.

- 홈페이지: www.peacemomo.org
- 이메일: peacemomo0904@gmail.com
- 연락처: 02-6351-0904
- 페이스북: www.facebook.com/peacemomo0904
-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365, 1층 & 3층 피스모모

배움의 공간에서
무기 박람회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

: 진행자를 위한 평화배움
교안 시리즈 9

발행일: 2021.10.23.

발행처: 아덱스저항행동, 피스모모